

이석수 “미르·K스포츠재단, 육영·일해재단과 비슷”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순실 4차 청문회 - 속속 드러나는 국정농단

김종덕 “저를 건너뛰어 결정되는게 많아 올해 초 사의”

남궁곤 “김경숙학장이 정운희씨 딸 지원했다고 말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15일 4차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등의 국정농단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국민의당 김경숙 의원의 “결국 두(미르·K스포츠재단) 재단을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가”는 질문에 “처음 보고했을 때 이게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또 지난 10월 특별감찰관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직전에 자신의 사표가 수리되고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다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법제사범위원회 증언도 못 하게 할 뿐더러 흑사라도 그 이후에 K스포츠나 미르재단에 대해 특감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나 인사혁신처는 그런 억지 해석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뒤에서 다른 의사결정을 한 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차은택씨의 대학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올해 초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면서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건너뛰어 결정되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을 다시 롯데에 돌려준 것과 관련,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수석은 해당 자금 자체가 하남시 부지에 인재양성을 위한 1500명의 체육관 건립을 위해 받은 것인데 관련 세부업무 추진이 어렵게 됐으니 돌려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대입 특혜 의혹을 두고 증인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갈리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대 측 증인들은 “부당한 특혜나 압력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지만 교육부 감사 담당자들은 “이미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체육대학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정씨의 지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합격을 시키라는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에 질의가 집중됐다.

남궁 전 처장은 “당시 김 전 학장이 승마 유망주와 아시안게임 얘기를 하면서 정운희씨의 딸이 우리 학교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남기지 않았다”며 “그 후 제가 인터넷으로 정운희씨의 딸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해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학장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며 “학장이 지시할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남궁 전 처장은 “당시 9월15일에 원서가 마감됐고 제가 총장께 보고가 들어간 게 9월22일이다. 그 사이에 김 전 학장을 뵈었다”며 “9월23일에는 다른 행사 때문에 다르게 만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정씨의 면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논란이 됐다. 남궁 전 처장은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교육부에서 이화여대 감사를 맡았던 김태현 과장은 “면접위원이 5명이었는데 그들은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김 전 학장이 정씨의 학점 관리를 청탁했느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김 전 학장은 부인하지만, 나머지 교수들께서는 그렇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할 등을 폭로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연합뉴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회 9명 구성

국회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한 탄핵심판소추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연직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권성동·오신환·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

영·송근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위원 3명은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친 후에 추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총 9명의 국회의원의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수행 전략을 수립하

고 변호사로 구성되는 소추인 대리인단을 구성할 뿐 아니라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수행을 지휘·감독·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위임을 받아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조사에 참여할 대리인단은 총괄팀장을 비롯해 15~20명의 변호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의 단장 격인 대표 팀장으로 사법연수원 1기인 황정근 변호사가 선임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운희 문건” 보도로 청와대 압력 받아 사퇴

조한규 ‘폭탄 발언’에 발칵

15일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메가톤급 폭로가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는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입에 시선이 모아졌다.

조 전 사장은 청문회에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할, 부총리급 관료의 뇌물 제공설 등을 터트려 정권가와 사법부가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 조영구(42·연수원 28기) 공보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정운희 문건’ 보도 당시 세계일보 사장을 맡고 있던 조씨는 이날 청문회 답변에서 문건에 대해 “진실

“정운희 문건 90% 진실”

권력 외압 여부 파장 주목

성이 90% 이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운희 문건’의 출처에 대해선 “제가 입수한 건 아니고 조모 기자가 2014년 3월 경향 측으로부터 입수한 건 맞다”며 “취재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입수경위를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의 사정 경질 배경과 관련해 “(청와대가) 절 밀어내려 했던 것”이라고 외압설을 제기했다.

이어 “대표 이사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기재한 당시 사정 경질을 의결한 임시주총 의사록 내용을 소개한 뒤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정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처음부터 (청와대가) 절 밀어내려 했던 것”이라며 보도 안된 파일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학자 총재의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31일 오후 5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만나자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민감한 내용을 보도한 신문사 사장에게 권력의 외압이 작용했음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순천 출신인 조 전 사장은 1991년 세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쳐 스포츠월드 편집국장 겸 총괄부장 등을 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헌재, 탄핵심판 인용해야” 75.7%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민주 지지” 35.9% 1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한 여론조사(13~14일 1058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7%가 “인용해야 한다”고 밝혀, “기각해야 한다”(15.2%)는 응답 비율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5일 밝혔

다.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지지층에서 인용 응답이 90%를 넘는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기각 응답(61.0%)이 인용(25.2%)보다 많았다.

또 새누리당의 분당이 현실화할 경우 친박(친박근혜)당과 비박(비박근혜)당이 비슷한 여론지지를 받으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전국 성인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분당할 경우 친박당과 비박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각각 전체의 12.6%로 나타나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35.9%에 달해 압도적인 1위였으며, 국민의당은 11.4%의 지지 응답을 받아 3위에 올랐다. 정의당은 6%였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초특가 실속규슈여행!** 499,000원
(단 3회! 12/19, 12/22, 12/25)

★**고품질 북큐슈여행!** 699,000원
(단 3회! 12/19, 12/25, 12/28)

규슈 출발일: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룩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 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권, 클럽, 음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풍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풍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A320-200 / 좌석: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료 가입(해외여행:1억원 국내여행: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판 및 부부 이혼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기차 등 교통편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권리 가입업체 ●역사적 계약사(최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항공기내/기내/기내외서비스,선박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